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

최영희

가톨릭대학교

〈요약〉

종교교육에서 충만한 신앙의 관점으로 양육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교육지침은 종교교재가 지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학교의 지침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톨릭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톨릭 교육’ 및 ‘가톨릭 학교’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을 주로 고찰하게 된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주요 지침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즉 첫째, 그리스도께 토대를 둔 전인교육, 둘째, 가톨릭 학교의 교회적 그리고 문화적 독자성, 셋째, 가톨릭 학교의 교육적 사명(가톨릭적 교육 목적의 실현), 넷째, 사회에 대한 봉사, 다섯째, 학교 내에 자유와 사랑 그리고 복음적 정신이 충만한 공동체 형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가톨릭 종교교재에 대한 것은 1958년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제작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초창기 때의 종교교재는 교리 중심적이고 주지적인 경향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종교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중학교 종교》(2002년에 출판)와 《고등학교 종교》(2002년에 출판)는 그 내용이 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종교교재의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교재를 새로 만든다면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학생들에게 접목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과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의 효용성 여부에는 여러 가지 변인이 있기 때문이다. 교과 내용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 교과 내용에 관심이 없거나 가치부여를 하지 않는다면 전인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의 특징에 부합하는 교수-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종교교육에 대한 내용을 알고, 깨닫고,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분위기 형성으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핵심 주제어 : 가톨릭 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재,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I. 들어가는 말

가톨릭 학교의 뚜렷한 교육 방향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재 내용은 과연 실현성이 있는가?

21세기는 새로운 과학, 문명의 사회가 빠르게 움터 오르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새로운 변화의 격동기를 잘 맞이해야 하겠다. 그런데 이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전통을 뿌리로 삼을 때 건실한 새싹을 돋우어 낼 수 있다. 물론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변화에도 마땅히 열려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식의 형성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1960년대의 연구¹⁾는 지식의 배가(倍加) 기간을 10년 이라고 보고했는데, 2000년의 연구²⁾는 73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의 팽창과 더불어 급변하는 물질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특히 종교적 다원주의는 지속 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중립 학교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동시에 종교 교과와 내용도 신앙과 문화의 통합, 신앙과 생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학습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삶의 목표와 인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이 팽창할수록 종교교육의 중심을 잡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온전한 교육의 실현은 온전한 교육의 방향 설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서’(1977)³⁾가 이미 공식 문헌으로 출판되었으며, 가톨릭 학교교육에 대한 방향 설정은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국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그 지침서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어려움도 있다.

교육 인적 자원부(2003년)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가톨릭계 학교는 초등학교가 6개, 중학교가 27개, 고등학교가 38개, 전문대와 일반대가 11개가 있다.

본고에서는 가톨릭 학교의 지침이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며 또한 종교 교재의 변천, 종교 교재 내용의 주제가 어느 면에 치중했는가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방향이 모색될 것이다. 종교 교재에 대한 것은 가톨릭계 중, 고등학교에 중점을 두어 파악할 것이다.

1) Goodlad, J. I., *The Changing Curriculum of America's School*, Saturday Review, Nov.16. 1963.

2) 박병선 외,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서울: 한국 교원단체 총 연합회, 《정책자료》 제69집, 2000.

3)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성염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77, 1-23쪽.

II. 가톨릭 학교의 주요 지침

21세기가 시작되어 몇 년이 흘러갔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학교라는 명제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톨릭교회에서도 학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톨릭 교육’ 내지는 ‘가톨릭 학교’에 대한 문헌들을 공포했다(이하 가톨릭 학교는 가톨릭계 학교를 의미함).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래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Lumen Gentium)과 ‘현대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에서 교회에 관하여 크게 부각시키면서부터 가톨릭 학교는 갈수록 교회 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⁴⁾ 교육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인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하고도 가장 절실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육의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었을까. 공의회는 현대 세계에서 교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또 교회의 자기반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에 대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Gravissimum Educationis, 1965, 이하 《교육선언》이라고 칭할 것임)이 제정되어 공포되었다.⁵⁾

공의회는 《교육선언》⁶⁾ 자체에 제시된 원리를 바탕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회답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원리의 대부분은 격동하는 사회의 발전 속에서 교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젊은이들의 총체적인 교육적 요청에 부합하게 하는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공의회 지침에 따라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1977)⁷⁾이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교육선언》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이며, 이 지침을 통하여 가톨릭 학교에 관한 보다 깊은 고찰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남녀 평신도의 역할이 중요한 소명임을 확인하는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1982)⁸⁾이라는 문헌이 나왔다. 그 뒤를 이어서 《가톨릭 학교의 종교적 차원》(1988)⁹⁾이 발

4) 같은 책, 1항.

5) Straelen. H., *Gravissimum Educationis*, Constitutiones decreta declarationes concili oecumenici Vaticani secundi, 현석호 옮김,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해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해설 총서 4》,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2, 19-20쪽.

6)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정의채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69, 585-603쪽.

7)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성염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77, 1-23쪽.

8)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정한교 옮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3, 1-35쪽.

9)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The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London: Catholic Truth Society, 1988.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되었음)

표되었다. 그리고 대학교에 관한 2개의 문헌으로서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1990)¹⁰⁾이 있고, 《대학 문화와 교회 활동》(1994)¹¹⁾이 발표되었다. 교황청 가톨릭성은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의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1997)¹²⁾라는 회람을 만들었다. 이 회람은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의 근본 특징들에 관하여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로 오늘날 가톨릭 학교의 정체성이 제시되고 있다.

1. 가톨릭계 학교란?

학교는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교육선언》에서 가톨릭계 학교는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면서 가톨릭계 학교가 무엇이나는 것에 대해 더욱 검토 할 것을 제안했다.

가톨릭계 학교란 교회에 의해 가톨릭계 학교로 인정받고, 인류와 국가 속에서 구원과 성화(聖化)의 사명을 지닌 특정한 교육기관이다. 그리스도는 가톨릭 학교에서 교육사업 전체의 토대가 된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복음에 의거하여 인간이 자신의 생각, 행동, 의지를 영위하고, ‘참된 행복’을 인생규범으로 삼게 만든다.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이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질 때 그 학교는 ‘가톨릭 학교’가 된다. 그때부터는 복음의 원리들이 학교의 내적 동기이자 최종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 원리들이 교육 규범으로 등장하게 된다.¹³⁾

그러나 ‘가톨릭계 학교’란 표현에는 교회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¹⁴⁾

- 1) ‘가톨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학교 중에는 교회 당국(교구, 본당 또는 전국적인 주교 연합체를 말함)에 의해 직접 설립, 관리되고 있는 학교가 있다.
- 2) ‘사립’ 가톨릭계 학교라고 칭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이는 수도회나 평신도 또는 학교 법인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다.
- 3) 공립 또는 국립의 학교이면서 로마 교황청과 각 정부 사이에 교환된 ‘정교 조약’(concordatum)에 의해 법률상 합법화된 가톨릭계 학교(유럽의 여러 나라)가 있다.

1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최영철 옮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 16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231-256쪽.

1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평신도 평의회, 문화 평의회, 《대학문화와 교회활동》, 최영희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9, 1-26쪽.

12)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 13호,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193-208쪽.

13)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4항.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4》, 66쪽.

전술된 어느 경우에서든 가톨릭 학교는 교회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학교의 봉사방법, 학생 선발의 자유, 학교의 수준, 교과과정의 결정 사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톨릭계 학교로 소개될 수 있는 성격과 뚜렷한 특징들에 대하여 깊은 주의와 함께 그에 대한 확신은 다음과 같다. 이는 가톨릭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다섯 가지 특징들이다.¹⁵⁾ 이러한 특징들을 다음절에서 차례로 살펴보자.

- 1) 그리스도께 토대를 둔 전인교육
- 2) 가톨릭 학교의 교회적, 문화적 독자성
- 3) 가톨릭 학교의 교육적 사명
- 4) 사회에 대한 봉사
- 5) 교육 공동체

가톨릭은 교육 분야에서 교육 기능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전문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새로운 필요조건들이 전통적인 것 이외에도 새로운 내용, 새로운 능력,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것을 전망해보면 가톨릭 학교는 용감한 쇄신을 감행해야 한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가톨릭 학교는 자신을 설득력 있게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톨릭 학교는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교육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⁶⁾ 여기에서 가톨릭계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각 사람이 개인이나 사회적 단체나 그 밖의 온갖 인간적 권력의 강제를 받지 말아야 하며, 그와 같이 종교 문제에 있어서도 강요되지 않으며,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천명(闡明)했다.¹⁷⁾

2. 그리스도께 토대를 둔 전인교육

가톨릭 학교의 교육 목적은 ‘그리스도께 토대를 둔 전인교육’에 있다. 따라서 가톨릭 학교는 전인의 발전에 투신한다. 이것은 완전한 인간, 즉 모든 인간 가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과 통일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가톨릭 학교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것이다.¹⁸⁾ 가톨릭 학교는 복음에 의거하여 학생들에게 참된 행복을 인생규범으로 삼게 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교적 안목을 가지도록 할 때 그 복음의 원리들이 최종목표가 된다. 다시 말해 가톨릭 학교는 학교와 가톨릭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함께 실현되도록 전인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15)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4항.

16) 같은 책, 2-3항.

17) 교황청 가톨릭,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69, 613-631쪽.

18)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5-36항.

본연의 목표에 따라야 한다.¹⁹⁾ 가톨릭 학교는 전인교육의 현장으로서 독특한 분위기를 창출한다. 교육은 가장 뛰어나고 창조적인 인간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왜냐하면 교사는 무생물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교육시키기 때문이다.²⁰⁾

전인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쉽지 않고,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 이론은 이미 연구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성서의 기원에 두고 있으므로 영과 육 모두를 아우르는 그의 전인으로서의 인격적인 품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전인교육이라고 정의한다.²¹⁾

사실 학교는 진학 준비 교육만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 덕, 체 혹은 지, 정, 의를 고르게 갖춘 전인적 인간 발달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적성, 소질 등을 탐색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²²⁾ “사람을 헤아려보고 가르치는 것과 그 사람을 헤아려보지 못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²³⁾고 했듯이 교육에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헤아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3. 가톨릭 학교의 교회적, 문화적 독자성

《교육선언》과 그 해설에 의하면 가톨릭 교육에 있어서 교회의 존재는 가톨릭계 학교를 통해서 제시된다. 가톨릭계 학교는 다른 학교에 못지않게 문화의 목적과 청소년의 인간형성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교육선언》은 교육의 영역에서 교회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 왜 교회가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스러운 어머니인 교회는 창조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구원의 신비를 만민에게 알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인간의 전 생활을 고려해야 하므로 교육의 진보와 확충을 위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²⁴⁾

“교회는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가톨릭 학교의 목적은 교회 자체를 위해서도 본질적이고 굉장한 봉사라 된다는 것을 절대 확신한다. 사실 교회가 인간의 전인형성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를 통해서다. 가톨릭 학교의 부재는 문명을 위해서나 인간의 자연적이고 초자연적인 운명을 위해서나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²⁵⁾라고 했듯이 가톨릭 학교는 분명히 교회의

19) 최영희 옮김, 《대학문화와 교회활동》, 17쪽.

20)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19항.

21)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정신〉,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편, 《순교의 맥》 (제202호),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5, 22-27쪽을 참조할 수 있다. 즉 전인(全人)인 영혼의 작용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난다.

22) 김운태, 〈학교교육을 살리자〉, 철학 문화 연구소 편, 《철학과 현실》 (제52),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127쪽.

23) 박희병 엮음, 《선인들의 공부법》,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212쪽.

24) 《교육선언》, 8항.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에서도 현대세계의 복잡성은 가톨릭 학교의 교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톨릭 학교는 교회의 참된 도구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목현장으로써 가톨릭이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된다. 가톨릭 학교는 교회의 복음 선포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인 교육을 실천하는 특권적 장소이다.(11항) 이처럼 “가톨릭 학교는 복음화의 현장인 동시에, 완전한 교육의 현장이며, 토착화의 현장인 동시에 서로 다른 종교와 사회배경을 가진 젊은이들이 활발한 대화를 익히는 현장이다.”²⁶⁾ 여기에서 우리는 앞서 말했듯이 각 종교 문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 누구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자기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데 방해받지 말아야 할 것을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문〉 11항에서 제시하고 있다.

비록 교회가 학교를 세운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비신자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자율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알아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타종교 학생이 개종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교적 가치관과 아울러 복음적 가치를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²⁷⁾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은 가톨릭 학교가 시대의 문화적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 가운데 하나가 문화적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 한가운데에 그리스도교 사고방식을 현존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람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귀하게 만드는 가치를 식별하도록 가르친다.(11항)

가톨릭 학교가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주의할 것이 있다.²⁸⁾

- 1) 학생들 안에 인격의 지성적이고 창조적이며 심미적인 기능을 계발시켜야 한다.
- 2) 학생들 안에 판단과 의지와 정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계발시켜야 한다.
- 3) 학생들 안에 가치 의식을 증진시켜야 한다.
- 4) 학생들 안에 의로운 자세와 분별하는 처신을 갖추도록 이끌어야 한다.
- 5) 학생들을 선배로부터 계승된 문화유산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 6) 학생들에게 직업생활을 준비시켜야 한다.
- 7)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이 우호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상호이해에 이르게 한다.

25)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15항.

2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권고, 아프리카 교회》, 102항.

27) 원종철, 〈교육의 목적과 가톨릭 학교의 역할〉,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7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2호), 2005, 116쪽.

28)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12항.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문화와 신앙의 통합이요 신앙과 생활의 통합이다.”²⁹⁾ 문화와 신앙의 통합에 있어서 가톨릭 학교는 적절한 대화를 출발시킬 기회를 포착하여 학생들 내면에서 이 두 가지의 종합이 깊은 차원에까지 이르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사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문화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표출되어야 한다.³⁰⁾

신앙과 생활의 통합은 지식, 가치, 자세, 처신 등이 신앙과 충분히 결합될 때에 학생들의 내면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가톨릭 학교는 구체적인 학생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육화라는 복음화의 목적 자체를 수행해야 한다.³¹⁾ 우리가 알아야 할 문화의 속성은 1) 몇몇 특정한 개인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2) 학습된 것이며, 3) 축적되는 것이며, 4)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5)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화한다는 점이다.³²⁾ 이러한 배경에서 가톨릭 학교의 교육은 신앙과 문화사이의 대화, 신앙에 뿌리박은 문화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문화가 신앙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³³⁾

4. 가톨릭 학교의 교육적 사명

《교육선언》 8항에서 가톨릭계 학교의 고유한 사명을 제시하고 있다. 즉

- 1) 학교 내에 자유와 사랑의 복음적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 조성.
- 2) 학생이 자기 인격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성세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
- 3) 학생이 세계, 생활, 인간에 대해 습득하는 지식이 신앙으로 조명되도록 하는 것.
- 4) 인류의 전문화를 궁극적 구원 소식에 질서 지워 주는 것.
- 5) 진보하는 시대의 상황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취하게 하여 지상사회의 복지를 촉진시키도록 교육하는 것.
- 6)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봉사하도록 준비시킨다.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7항에서도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문화와 신앙의 통합이며, 신앙과 생활을 통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학생들이 배우는 지식의 모든 부면이 복음의 빛을 받아 통합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지녀야 할 고유한 덕성을 성장시킴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덕성을 키우는 교육이 가톨릭 종교 교과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덕은 어떤 능력을 완전하게 만든다. 능력은 그 행위에 규범을 가지게 될 때 완전하며 행

29)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7항.

30)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29항.

31) 같은 책, 31항.

32) 김문환, 《문화 교육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93쪽.

33) 《대학문화와 교회활동》, 18쪽.

위의 규범은 습성이다. 따라서 덕은 하나의 습성이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덕이란 선한 성질로서, 그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아무도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교적 덕성을 함양시키는 것이 가톨릭 학교의 사명이므로 덕성을 지닌 인간 교육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희랍 철학의 영향으로 네 가지 덕목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지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상황을 바로 판단하고 분수를 알고,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해주는 삶의 기본 능력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혜는 하느님의 때와 뜻을 바로 알아듣는 것으로 자신과 이웃의 생활을 진실하고 참되게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다. 둘째, ‘정의’는 법과 질서와 연관되어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 있게 보존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셋째, ‘용기’는 공포나 부끄러움 같이 인간의 행동을 위축하는 것을 극복하는 힘으로서 자유의 관문 역할을 한다. 인간은 용기를 통해서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다. 정의와 지혜에 바탕을 둔 용기가 아니면 그는 용기라 할 수 없고 만용이 된다. 용기가 덕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 정의, 사랑을 위한 봉사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영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고집이나 포악함에 불과하다. 넷째, ‘절제’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며 바로 살아가는 힘으로써 무분별한 태도에서 보호받는다. 다섯째, ‘겸손’은 하느님을 섬기며 이웃을 존경하는 태도이며 성실하게 인간의 사명을 이행하는 행동이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동은 하느님의 뜻에 순응함으로써 자기를 극복하는 겸손이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어 비굴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 이상으로 높이는 오만도 아니며 자신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 인식과 태도이다. 여섯째, ‘온유’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윤리덕으로 부각되어 친절과 상통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며, 박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 메시아가 걸어 온 길, 구원의 힘이 드러난 모습이다. 온유는 영웅적 태도의 뒷받침이 되는 덕목이다.³⁴⁾ 가톨릭 학교의 사명은 덕성 교육을 해야 하므로 학생들에게 덕성을 배양하는 교과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사회에 봉사하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 학교가 참으로 인류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가톨릭 학교는 책임을 갖고 진지하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학교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 안에서 “가톨릭 학교는 하느님 백성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크게 공헌하며 교회와 인간사회 상호간의 유익을 위해 양자의 대화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또 이 때문에 현대의 상황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³⁵⁾ 따라서 가톨릭은 학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은 가톨릭 학교의 교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34) 최창무, 《윤리신학 II》,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9, 29-32쪽.

35)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8항.

더욱 증대시키도록 하고 있다.”³⁶⁾

학교는 다른 교육 기관들과 분리하여 생각하거나 별개의 실체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체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가톨릭 학교는 새로운 상황에 냉철하게 대처하고 불완전한 교육 계획을 단호히 거부함으로써 다른 교육 기관의 모범이 되고 자극이 되어야 한다. 가톨릭 학교는 공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 따라 설립된 것이 사실이지만 가톨릭 신자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이러한 개방성에 의해 가톨릭 학교는 항상 어떠한 차별도 없이 시민 사회의 향상과 인간 발전에 이바지한다.³⁷⁾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은 비인격화된 대량 생산적 사고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가톨릭 학교가 인격 형성의 기관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가 책임감을 갖고 인간의 내면을 중시하며 자기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할 줄 아는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이것은 학교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본연의 삶을 향하게 하여 사회봉사를 위해 자신을 개방할 줄 알도록 교육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⁸⁾ 그러므로 가톨릭 학교는 기꺼이 여러 나라의 교육 체제와 생명 존중과 종교자유를 비롯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개별 국가들의 법률을 따른다. 국가와 학교의 올바른 관계는 제도적 관계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모든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바탕을 둔다.³⁹⁾ 더 나아가서 “가톨릭계 학교와 기타 학교 간에 전 인류의 복지가 필요로 하는 협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⁴⁰⁾ 이와 같이 인류의 복지를 위한 사회봉사는 가톨릭 학교의 교육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6. 교육 공동체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학생, 부모, 교사, 교장, 비 교사직원 등, 각 부류의 사람들 모두의 접촉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공동체의 구조 내에서 수행된다. 이들 모두가 함께 학교를 전인교육의 도장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⁴¹⁾ 이렇게 교육 공동체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에 당연히 주목하게 된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개인적 참여, 참된 상호관계, 태도의 일관성, 삶의 방식, 일상행동 등에서 학생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식을 배우는 개인적 역할을 존중하

36)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11항.

37) 같은 책, 16항.

38)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1항.

39)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17항.

40)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12항.

41)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22항.

면서 공동체 차원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늘날 학교를 가장 풍요롭게 발전시키기 때문이다.⁴²⁾ 참된 공동체는 친교를 하는 축제의 장이며, 현존하는 공동체의 축제이고 다가올 공동체를 향한 방향을 잡는다.

《교육선언》에서 가톨릭 학교의 공동체 차원이 단순히 사회학의 범주가 아니라 신학적 토대임을 밝혔다. “공동체라는 것이 영성적이며 위격적인 개별성에 상관성을 띠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결합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는 개별성에 상관적인 것으로서 타자로부터 아무것도 상하 어디에 있어서나 간에 고립될 수 없는 것이다.”⁴³⁾ 인간은 한 개인이요 참으로 유일하며 남에 의해서 도저히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더욱이 인간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유일하고 개별적인 개인이 되도록 고차적인 가치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완전한 개별체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힘도 받았다.⁴⁴⁾ 이런 의미에서 학교 공동체는 개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공동체적 차원을 강화 내지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톨릭 학교의 고유한 사명은 학교 내에 자유와 사랑의 복음적 정신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학생들 사이에 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자유롭고도 참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학생 개인들에게 진리, 인격의 존엄성, 객관적인 법과 질서, 사랑에 바탕을 두어 올바르게 자유를 이해시키고 그러한 것을 유지시키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학교는 ‘탁월한’ 공동체이다.⁴⁵⁾

III. 가톨릭 종교교재의 변천과 내용

학교는 교과를 통해서 학생의 인간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당면한 근본적인 과제는 교과교육을 어떻게 현대화하고 개선하느냐에 달려있으며, 교과교육의 개선은 곧 학교 교육의 개선을 의미한다.”⁴⁶⁾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교과를 통해서 그 학교의 특성도 나타내고, 그 학교의 교육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 동안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재⁴⁷⁾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번 발간되었다. 어떠한 내용의

42)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18항.

43) Rahner, k., *Der Mensch von Heute und Religion*, 변기영 옮김, 《오늘의 인간과 종교》,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1, p.125.

44) 같은 책, 123쪽.

45)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헌해설-4》, 71쪽.

46) 장병선 외, 《교과교육 원리》, 서울: 갑을 출판사, 1988, 15쪽.

47)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종교교재에 대해서만 본고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 이외의 종교교재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찾을 수 없었다.

종교교재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종교교재가 출간되었는지에 대해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또한 종교교재의 변천에서 종교교재가 어떤 주제로 만들어 졌는지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1. 1958년-1960년의 종교 교과서

가톨릭에서는 1958년-1960년 사이에 3권의 종교 교과서가 편자 대표 임화길에 의해 상지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제1권은 「세상의 빛」(1958년), 제2권은 「인간의 길」(1959년), 제3권은 「새로운 생명」(1960년)이라는 서명을 각각 지니고 있다. 각권의 내용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권의 「세상의 빛」은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천주’, ‘삼위일체’, ‘천지창조와 초자연적 생명’, ‘최초의 죄’, ‘구령예의 준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 ‘예수의 고난과 죽음’, ‘예수의 부활과 승천’, ‘교회’, ‘교회와 인간의 장래’로 각각의 장(章)을 이루고 있다.

제2권의 「인간의 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의 도덕성’, ‘예수 그리스도와 도덕’, ‘천주께 대한 길’, ‘이웃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길’, ‘자기에 대한 길’로 각각의 장을 이루고 있다.

제3권의 「새로운 생명」은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원을 기다리고 바란 인류와 구약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에 의한 인류의 구원’,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성총’, ‘신약 시대의 유일한 희생’, ‘성당과 미사의 제구와 사제’, ‘미사성제의 제식의 기원과 변천’, ‘미사성제(준비의 부분)’, ‘미사성제(미사의 본체)’, ‘그리스도와 우리의 희생인 미사성제’, ‘주일과 미사성제’, ‘교회연력과 미사성제’, ‘교회의 성사’, ‘성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혼배’, ‘신품’으로 각각의 장을 이루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3권 모두 가톨릭 교리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다. 제1권은 ‘예비문제’가 있어서 배워야 할 교과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여 동기유발을 시키고, ‘간추림’에서는 배운 내용에 대해 질문을 낱낱이 하고 있으며, ‘응용문제’에서도 학습에 대한 응용을 종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다. ‘예비문제’에서는 학습의 동기유발을 시키고, ‘간추림’에서는 배운 교과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응용문제’에서는 배운 내용을 실현하도록 이끌고 있다. 제2권에서는 ‘반성’이라는 항목을 더 첨부하여 자신의 종교적 삶을 살펴보고 반성을 하도록 이끈다. 제3권에서는 ‘요점’과 ‘연구문제’까지 포함시켜 제1권의 ‘예비문제’를 대신하고 있다. 그리하여 각 장의 주제가 시작할 때 ‘요점’을 두어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 미리 그 요점을 알려준다. 이어서 ‘연구문제’가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교과서들은 시기적으로 6.25동란 이후 어려운 때에 발간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2. 1962년의 종교 교과서

가톨릭에서는 1962년에 ‘종교 교과서 편찬위원회’ 역 편으로 5권의 교재가 출판되었다. 저자는 ‘바르바로’라고만 되어 있으며 원 서명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권은 「신앙」, 2권은 「윤리」, 3권은 「성충」, 4권은 「천주와 인간」, 5권은 「그리스도교」라는 서명들을 갖고 있다. 제3권까지는 책 속에 삽화가 중간 중간에 있다.

1권은 「신앙」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종교공부’, ‘천주님은 계십니다’, ‘천주님’, ‘천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가장 값있는 책’,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일생’, ‘신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주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삼위일체’, ‘인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공교회’라는 주제가 있다.

본 교과서의 1장에서 ‘당신은 오늘부터 중학생입니다.’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장의 끝에는 ‘질문’이라는 대목을 넣어 그 과에서 배운 내용을 간략히 질문하고 있다. 이어서 ‘생활노트’라는 대목에서는 배운 교과와 내용을 생활하도록 질문하면서 그 질문과 관련이 있는 ‘착한 일’이라는 대목을 넣어 실제로 결심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러한 것은 ‘성서의 이야기’라는 대목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어느 복음의 몇 장, 몇 절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2권의 「윤리」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자연법과 양심’, ‘천주의 손으로 쓰인 것’, ‘가장 큰 계명’, ‘천주님의 대한 의무’, ‘천주의 이름과 거룩한 날을 받들 것’, ‘부모를 공경할 것’, ‘생명을 존중할 것’, ‘깨끗한 마음’, ‘남의 것을 훔치지 말 것’, ‘덕행’, ‘항주덕’, ‘행복한 사람’들로 되어 있다. 각 장의 끝에는 1권과 마찬가지로 ‘질문’, ‘생활노트’, ‘착한 일’, ‘성서의 이야기’가 있다. 본 책에서는 윤리적인 면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중학생(2학년으로 추측됨. 필자 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3권의 「성충」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큰 은혜’, ‘상존성충’, ‘조력성충’, ‘일곱 가지 성사’, ‘성사적 은총’, ‘성세성사’, ‘건진성사’, ‘성체성사’, ‘미사성제’, ‘고해성사’, ‘훌륭한 교회’,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다. 각장의 말미에 ‘질문’, ‘생활노트’, ‘착한 일’ 그리고 ‘성서의 이야기’ 대신에 ‘교회사’를 수록하고 있어 그동안 교회가 거쳐 온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있다. 본 책에서는 칠성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중학교 3학년용으로 사용한 것 같다.

4권의 「천주와 인간」은 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생의 의미’, ‘인생과 종교’, ‘종교의 의미’, ‘현대의 무신론’, ‘진리와 학문과 천주’, ‘천주의 존재는 증명할 수 있다’, ‘우주’, ‘신비스러운 우주’, ‘질서는 천주를 요구한다’, ‘생명의 기원’, ‘진화론과 천주’, ‘진화론과 인간’, ‘천주와 윤리’, ‘천주 인간 문명’, ‘참 종교와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의 문제’, ‘그리스도의 천주성’, ‘그리스도의 천주성과 최초의 제자’, ‘예수의 기적’,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꾸며져 있다. 각 장의 끝에는 ‘질문’과 ‘연구문제’가 있다. ‘질문’의 항목을 둔 것은 그

배운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구문제’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교과 내용의 더욱 더 생각하도록 이끌고 있다. 따라서 배운 교과 내용의 확고한 자신의 지식이 되어 실제의 삶 안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이 책은 고1학년용으로 사용한 것 같다.

5권의 「그리스도교」는 1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역사의 의미’, ‘역사의 중심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살아 있다’, ‘게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여러 종교’, ‘살아있는 교리’,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리’, ‘천주의 신비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현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성충’, ‘인간의 비극 원죄’, ‘속죄의 길’, ‘우리 어머니 마리아’, ‘가톨릭교회’, ‘참된 교회의 특징’, ‘가톨릭교회의 사명’, ‘종말신학’으로 되어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각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진리의 보편성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의 책들에서와 같이 배운 내용에 대한 되풀이가 없다.

3. 1964년-1965년의 종교 교과서

1964년과 1965년에는 중, 고등학생을 위한 5권의 종교 교과서가 가톨릭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이 책(La Solution du Probleme de la Vie)의 저자는 예수회 소속 러로뜨(Fernand Lelotte, 프랑스인) 신부이며, 종교 철학분야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것을 김정진 신부가 번역하여 종교 교과서로 활용했다. 각 책의 서명에서는 종교교육-1에서부터 종교교육-5까지의 서명을 각각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교육 교재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종교교육-1은 「인생과 천주」, 종교교육-2는 「인생의 기원」, 종교교육-3은 「인생과 그리스도」, 종교교육-4는 「인생과 교회」, 종교교육-5는 「인생과 사회」로 되어 있다.

종교교육-1로서의 「인생의 의미」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I부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생과 천주’, ‘인간의 태도’, ‘기본적인 태도’이다. II부에서는 ‘무한히 큰 것’, ‘무한히 작은 것’, ‘자연의 경이의 단계’, ‘새로운 정신적 태도’로 되어 있다. III부에서는 ‘인간’, ‘천주’, ‘천주와 인간과의 관계’, ‘새로운 영적인 태도’로 되어 있다.

종교교육-2로서의 「인생의 기원」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막에서는 ‘창조일반’, ‘물질계의 기원’, ‘인간이외의 생명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의 사명’, ‘인간의 본성’, ‘자연법칙’, ‘인간의 자연사회’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2막과 제3막은 있으나 장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번호만 달아 7개의 주제가 있다.

종교교육-3으로서의 「인생과 그리스도교」는 제4막과 제5막으로 되어 있다. 제4막에서는 ‘삼위일체’, ‘역사상의 그리스도’, ‘강생의 현의’, ‘구속의 중심’, ‘동정녀 마리아’이며, 제5막에서는 ‘교회의 보이지 않는 현실’, ‘교회의 얼굴’, ‘지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다른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교교육-4로서의 「인생과 교회」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와 개인’, ‘교회와 인간의 몸’, ‘교회와 감성’, ‘교회와 마음’, ‘교회와 지성’, ‘개인에게 불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종교교육-5로서의 「인생과 사회」에서는 1부에서 3장, II부에서 3장, 새로운 땅이라는 부에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천주의 계획’, ‘결혼의 준비’, ‘결혼’, ‘가정생활’이며, II부에서는 ‘정의와 기능’, ‘국가의 권위’, ‘국가와 다른 사회’, ‘교회와 국가’로 되어 있으며, 새로운 땅이라는 부에서는 ‘재화의 규정’, ‘재화의 이용’, ‘재화의 분배’, ‘기업’으로 되어 있다. 종교교육이 교리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까지 관련을 짓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1966년의 종교 교과서

김정진 신부의 역임으로 「중학교 종교 I」, 「중학교 종교 II」, 「중학교 종교 III」이 출간되었다. 이 종교 교과서는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 있게 엮었다. 종교 교과서에서 인생문제를 다루며 생활을 반성하는 정신을 키운다는 특징으로 엮었다.

「중학교 종교 I」에서는 ‘빛을 따라서’, ‘인생여행의 출발점’, ‘인생여행의 목적지’, ‘아름다운 자연은 천주를 말한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천주’, ‘양심에 의해서 천주를 안다’, ‘천주의 속성’, ‘천주와 우리’, ‘위대한 인간-이성을 갖춘 인간’, ‘위대한 인간-자유의를 갖춘 인간’, ‘인간의 사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교 종교 II」에서는 ‘성경과 성전’, ‘창세기 1장’, ‘인간의 조상’, ‘구약시대’, ‘천주의 내적 생활’, ‘구세주의 내림’, ‘그리스도의 생애의 개략’, ‘사복음서’, ‘기적’, ‘착한목자’, ‘부활’, ‘교회의 창립’, ‘교회의 특징’, ‘성총과 성세’, ‘가톨릭생활’, ‘그리스도의 최대의 선물’, ‘미사성제’, ‘천국을 향하여’로 엮여졌다.

「중학교 종교 III」에서는 ‘훌륭한 것’, ‘인간의 존엄’, ‘인간과 사회’, ‘인간-종교적 존재’, ‘종교의 본질’, ‘인간-고뇌 많은 존재’, ‘천주와 대화한다-기도’, ‘신앙과 회심’, ‘천주를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완전한 인격’으로 되어 있다.

5. 1993년의 종교 교과서

고등학교용 「종교(천주교)」가 ‘가톨릭 교육재단 협의회’의 편찬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 책은 교육부 인정(1993. 2.3) 교과서이며, 머리말에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은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가톨릭교회의 기본 이념을 전달하는 것, 둘째, 타종교에 관한 이해와 대화증진을 위한 것, 셋째, 전인교육과 다원사회의 적응을 위한 것, 넷째, 인생의 깊이와 신앙생활을 위한 것, 다섯째, 이웃에게 봉사하려는 것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종교 교과서에서는 처음으로 이웃 종교들과 민간 신앙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하고 있어 종교의 선택에 대한 객관적 지식 함양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문화와 예술에 대한 설명도 이전의 교과서와는 달리 이해의 폭을 넓혀놓고 있어

다원사회의 적응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8명의 연구진과 9명의 집필진은 교과와 전문성과 학문의 다양성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과서 내용의 주제들은 ‘인간과 종교’, ‘종교들의 세계’(이웃 종교들), ‘나를 이끄시는 분’, ‘성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의 완성’, ‘가톨릭 예술’, ‘한국 천주교회’, ‘가톨릭교회와 한국 문화의 창조’로 되어 있다.

6. 1996년의 종교 교과서

〈가톨릭학교 종교교재〉라는 부제가 있다. 「인생과 사랑(상)」 그리고 「인생과 사랑(하)」가 ‘가톨릭종교교재 편찬위원회’ 편저자로 출판되었다. 각과의 끝에는 ‘생각해봅시다.’라는 란을 두어 그 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필요한 생각을 해보도록 부여하고 있다.

이 「인생과 사랑(상)」의 내용 주제들은 ‘내주위의 사람들’, ‘인생’, ‘빛을 따라서’, 부록에서 ‘한국천주교회사’, ‘역사연표’를 첨가시키고 있다. 하권은 ‘인생의 길’, ‘사랑으로 영원히’, ‘빛을 따라서’이며 부록에서 ‘계시와 말씀’, ‘마리아께 드리는 공경과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 ‘기타종교’로 나타나 있다. 비교적 전체 내용이 간단하며 중학생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7. 2002년의 종교 교과서

‘가톨릭교육 재단협의회’에 의해 「중학교 종교」와 「고등학교 종교」가 출판되어 현재 가톨릭 중,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권의 책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인정’ 도서로서 7명의 집필자들이 현대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집필된 종교 교과서들은 ‘국정 교과서’(국어나 국사) 혹은 ‘검정 교과서’(영어나 수학 같은 필수과목)가 아니고 선택과목이므로 심사를 거쳐 ‘인정 교과서’가 된다.

「중학교 종교」의 목차 주제는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즉 ‘인간과 종교’, ‘종교와 문화’,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서’, ‘한국 천주교회’, ‘인격완성과 아름다운 세상’의 실현이다. 각 장의 시작에 ‘이 단원을 공부하기 위하여’라는 란을 두어 그 단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또한 ‘생각하기’와 ‘이야기 나눴어요’가 있어서 학습의 내면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에 만화와 노래도 있어 중학생의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고등학교 종교」의 목차 주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즉 ‘나를 찾아서’, ‘인간의 길’, ‘이웃의 종교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의 선택’, ‘행복을 찾아서’이다. 각 주제마다 ‘활동과 질문’이라는 공간을 두어 복습은 물론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직접 손으로 쓸 수 있게 여백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 않다는 평이다.⁴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가톨릭계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의 내용 분포비율이다.

제1장 '나를 찾아서' - 17쪽, 11.5%

제2장 '인간의 길' - 17쪽, 11.5%

제3장 '이웃의 종교들' - 19쪽, 13%

제4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 29쪽, 19%

제5장 '우리의 선택' - 27쪽, 18%

제6장 '행복을 찾아서' - 41쪽, 27%

위의 주제가 과연 가톨릭 학교의 고등학생들에게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종교교과에서는 위의 주제가 마땅히 학습되어야 하지만 그 내용상에는 좀더 구체적이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가톨릭 학교치고 종교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다. 그런데 가톨릭 학교들은 대체로 교양 선택과목으로 「종교」와 「철학」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는 고등학교의 정규과목이지만 사실상 가톨릭을 포함한 다른 종립학교에서만 가르치고 있는 매우 특수적 교과목인 셈이다. 문제는 중 고등 학생들은 컴퓨터 임의배정으로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어 원하지 않는 종교교과를 들어야만 한다는 점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 교과목은 종전의 종파적 전교 지향적 성격을 지양하여 앞으로 더욱 학문적이면서도 수신(修身)의 덕을 배양하고 인성 교육을 하는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⁴⁹⁾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28항에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학교는 교육 프로그램 전체에 영감을 주고 그것을 좌우하는 하나의 세계관에 비추어 교육의 전체 프로그램, 그 내용과 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전인격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지향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가톨릭 학교에서는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에 비추어 개별 학생의 전인적 형성에 목적을 두고 교수상(敎授上)의 일치를 도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고등학교 종교」 교과서에서는 전인교육에 대한 것을 1장(나를 찾아서), 2장(인간의 길), 5장(우리의 선택)에 포

48) 안미연,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9-60쪽 참조: 교사들과의 면담사례에서 어느 교사의 말에 의하면 “종교 교과서가 있지만 수업시간에 쓰지 않고 있어요. 내용 구성이 아이들에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매시간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교사는 인성적인 내용과 종교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주제를 선택한다고 한다. “처음 부분 ‘나는 누구인가’에서 인성적인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오래해요. 그리고 우리학교가 그리스도교 학교니까 그 내용을 좀 하구요. 그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다루죠.” 실제로 교사마다 다양하게 종교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 종교 교과서를 새로 집필할 때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49) 김종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종교학 연구회, 《종교학 연구》 20집, 2001, 35-36쪽.

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육의 실현을 위한 방법적인 면에서는 더욱 개발해야 할 여지가 남아있다.

IV. 가톨릭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방향

《교육선언》은 가톨릭 학교의 본질, 목적, 수단을 재평가하여 현대교회의 사명과 현대세계의 필요에 적응시켜야 할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곧 가톨릭 학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완전한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1. 완전한 교육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에서 “완전한 교육은 종교교육을 내포한다. 종교는 인격의 다른 측면들의 발전에 매우 효과적인 기여를 하게 마련이며, 그런 점에서 제반 교육에 통합되는 것이다.”(19항) 이와 같은 교육은 학교교육 및 학교생활의 분위기가 종교적 가치를 존경하여 인간과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종교교육의 지식 속에 그리스도교의 세계관, 인생관, 문화관, 역사관이 있다. 이러한 것은 학생에게 지식만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배워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 그렇다고 진리의 발견을 위해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들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하여 앞으로 취할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톨릭 학교에서 그리스도교 교의를 강제로 주입한다면 그것은 최종적이면서도 완전한 응답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종교교육은 단지 종교 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전존재를 귀의시키는 거기에 목적을 둔다.⁵⁰⁾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전존재를 귀의시키는 것이 완전한 교육이며, 이것이 바로 가톨릭 종교교육의 방향이 된다.

가톨릭 학교의 모든 과목은 각각 그 고유하고 특수한 내용으로 성숙한 인격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학생이 종교교육을 받아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완숙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에페 4,13)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다.

2. 교육과정에서의 종교교육

제6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1992-19호, 1992.3.1)에서 교양 선택교과는 ‘환경과학’ 과목이 새로이 추가되어 7개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수업단위는 기존의 2배인 4단위로 증가되었

50)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50항.

고, 더 중요한 변화는 교양 선택교과 전체의 방향이 설정되고, 각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종교교육도 비로소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지침에 따라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종교교육 과정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일반학교의 공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을 절충한 것이다. 학생들이 종교적인 이유에서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그 대신 생활기록부에 과목이수 상황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기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1997. 12. 30)에서의 종교교육은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가 확정한 현행 제7차 고등학교 종교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⁵¹⁾

영역	내용
1.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 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2.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문제, 우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 규범, 종교의식과 종교적 실천.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4. 세계 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유교와 도교 문화, 한국 그리스도교와 문화 한국 무속 신앙과 민속 종교.
7. 종교 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 간의 이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형성.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생활 설계.

제7차 교육과정에서 종교과목의 기본 목표를 요약하면 1) 종교에 대한 이해가 폭넓고 균형 있는 지식으로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게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인생문제의 난관을 극복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키운다. 3) 이웃 종교를 포용하고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종교문화를 형성하게 한다. 제7차 종교교육과정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적 종교교육을 병행하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자를 좀더 강화했다.⁵²⁾ 앞으로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종교적 센스 또는 정조(情操)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51) 김종서, 앞의 글, 34쪽.

52) 안미연, 중등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실태 분석, 20-24쪽.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사용할 만한 비종파적 종교 교과서가 나와야 할 것이다.⁵³⁾ 현재 한국 종교교육 학회에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교과서는 학문성취의 가치를 강조한다. 학생의 지적 성취를 고귀하게 여겨 지적탐구 능력과 지식의 습득을 중요시 하며, 내용의 조직과 편성이 기존의 학문과 경험을 배경으로 삼아 현대의 특성을 고려한 정당성을 확인해야 한다. 종교 교과목은 종교적 인간 육성에 관계되어 있으므로 종교 교과서의 내용은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능동적으로 종교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학습내용은 인간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직결되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하고, 일정한 준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대부분은 교과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오늘날 학교교육에서의 인간육성은 교과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 할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⁵⁴⁾ 그리하여 학생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발견되도록 종교 교과서는 만들어져야 한다.

3. 종교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분위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은 주지적(主知的)이며 주입식 암기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내신제 성적 때문에 긴장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지니고 수업을 받고 있다. 또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 실력고사 등으로 학생들은 시험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많은 학생수의 학급에서 학과진도에 쫓기어 자유롭게 토론하며 발표 할 기회가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대학입시 준비의 어려움은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난제이다.

그럼 그와 반대로 종교수업은 입시과목이나 내신제 과목이 아니므로 점수에 자유로워 편안한 마음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 문화, 이웃종교 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변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교과 진도나 평가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교수-학습은 교사의 재량권에 있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종교교과내지는 종교교육에 대한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유리한 입장으로 전환시켜 교수-학습의 분위기를 혁신하여 목표달성에 접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⁵⁵⁾

종교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대중의 의견 속에서 무시되거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경험은 이해에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교수-학습의 분위기는 학습과정에 더욱 긴밀한 영향을 미친다. 개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새로운 종교적 관념에 직면했을 때 그 사실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게 된다.

학생은 학습되어질 지식이나 교수방법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지식이라도 학생에게 가치

53) 김종서, 앞의 글, 36쪽.

54) 장병선, 앞의 책, 55쪽.

55) 류근필, 한국기독교계 중등학교 종교교과서의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66-67쪽.

를 부여하지 못하거나 그의 삶에 이질성을 가져온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식은 학생이 좀더 성숙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관련성도 의미도 주지 못하는 말들의 축적으로 학생들을 그 속에 예측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학습자 개인에게 무엇이 일어나느냐에 있다. 학습은 변화를 가져온다. 이 변화는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방향전환을 의미하며 삶의 목표와 방향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다.⁵⁶⁾

교수와 학습의 원리는 매우 다양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마르타(Martha M. Leypoldt)에 의하면 학습은 다음과 같은 변화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견해이다.⁵⁷⁾ 1) 지식이 더해질 때, 2) 이해가 증가될 때, 3) 새로운 태도가 수용될 때, 4) 새로운 의식이 획득되어질 때, 5) 학습되어졌던 것을 시행할 때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변화의 종류들을 세 개의 범주 곧 ‘앎’, ‘깨달음’, ‘행함’이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다.⁵⁸⁾ 이것은 첫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무엇이 첨가되었나? 둘째, 내가 듣고 읽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나? 셋째, 내가 듣고 읽은 것과 더불어 무엇을 행하고 있나? 라고 말할 수 있다. ‘앎’, ‘깨달음’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변화의 종류를 알고 이것들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앎’에 있어서의 변화(knowing): 지식을 얻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변화를 시도한다면 이를 앎이라고 하는 행위의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

‘깨달음’에 있어서의 변화(feeling): 추구하는 변화가 새로운 태도를 수용하고 옳은 인식을 획득하는데 있다면 이를 깨달음이라는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

‘행함’에 있어서의 변화(doing): 추구하는 변화가 배운 것을 행하는데 있다면 이를 행함 혹은 실천된 행동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와 같이 ‘알고자 하는’ 행위는 ‘지식을 얻는 것’이요, 바람직하게 ‘깨닫고자’하는 행위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요, 바람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도와주는 것’이다. “교사가 전력을 기울여 지향해야 할 목표는 각 학생의 전인교육”⁵⁹⁾에 있으므로 위의 세 가지 범주를 포함시켜 종교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교육의 교수-학습 분위기에서도 종교적 지식을 얻고, 종교적 태도를 발전시키며, 종교적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종교 교과서도 위의 세 가지 범주를 염두에 두고 집필된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56) Martha. M. L., *40 Ways to Teach in Groups*, 권용근 외 옮김, 《교수-학습방법》,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12-13쪽.

57) Malcolm. S.K., *Informal Adult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0, pp.30-31.

58) 권용근 외 옮김, 앞의 책, 22-23쪽

59)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28항.

V. 결 론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은 사회발전의 격동 속에서 교육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가톨릭 학교의 성격과 특징에 관해서 주의를 집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톨릭 학교는 신앙과 문화 사이의 대화, 신앙과 생활의 통합이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학계, 문화계, 과학계, 종교계에서 의미 있는 주체가 되어 그러한 발전을 추구한다면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 전인적인 발전에 힘이 모아질 것이다. 이 힘의 원천을 종교교육에서 찾았으면 한다.

가톨릭 학교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가톨릭 학교가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귀감이 된다.⁶⁰⁾ 가톨릭 학교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의 가치들이 완성과 통합을 이룬다는 가르침이다. 주입적인 무기력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학교 공동체의 풍토가 형성되도록 한다. 그 해결책은 우선 봉사하는 학교로 거듭 태어나야겠다.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가 좋은 교재를 사용할 때 가능하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출발하듯이 종교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양성과 전인교육을 위한 종교교재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톨릭 학교가 좋아지기 위해 시행해야 할 여섯 가지 지침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좋은 종교교사의 수업은 교수·학습의 분위기를 앞, 깨달음, 행함이라는 면에서 살펴보았다. 결국 종교교육은 지성, 인성, 영성을 통합하는 전인교육에 있다. 그러한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지면 관계상 과제로 남겨 놓았으나 한국 종교교육 학회에서 주관한다면 어느 한 종파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양성이 될 듯 하다.

종교교재는 가톨릭에서 현재까지 사용해온 변천을 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의 실현성에 대한 구체적인 면은 약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종교교재에 담긴 좋은 내용들이 문화의 다원성에 노출되어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특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가치판단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1966년 이전의 종교 교과서에서는 주로 가톨릭 교리적인 면에 치중되어 편집되었으나 1993년 이후부터는 인생, 인간, 이웃종교, 문화, 행복 등을 포함시키는 교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천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곽병선, <21세기 교육발전 전략>, 서울: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회 편, 《정책자료》(제69집), 2000.
- 교황청 가톨릭,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정의채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문

60)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35항.

- 헌》,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69.
- 교황청 가톨릭,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 최명화 옮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69.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 학교에 관한 지침》, 성염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77.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정한교 옮김,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3.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대학문화와 교회활동》, 최영희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99.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있는 가톨릭 학교〉,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제13호), 서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2000.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톨릭 대학교에 관한 교황령〉, 최영철 옮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16호),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 김중서, 〈한국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종교학 연구회, 《종교학 연구》 (제20집), 2001.
- 김운태, 〈학교교육을 살리자〉, 철학문화 연구소 편, 《철학과 현실》 (제52호),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2.
- 박희병 엮음, 《선인들의 공부법》,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8.
- 원종철, 〈교육의 목적과 가톨릭 학교의 역할〉,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가톨릭 신학과 사상》 (제52호), 2005.
- 장병선, 《교과교육 원리》, 서울: 갑을출판사, 1988.
- 최영희, 〈방유룡 신부의 영성과 점성정신〉,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편, 《순교의 맥》 (제202호), 서울: 가톨릭 출판사, 2005.
- 최창무, 《윤리신학 II》, 서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89.
- Marta, M. L., *40 Ways to teach in groups*, 권용근 옮김, 《교수-학습방법》,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5.
- Rahner, K., *Der mensch von heute und religion*, 변기영 옮김, 《오늘의 인간과 종교》,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1.
- Vaticani secundi, 현석호 옮김,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해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설 총서 4》,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92.
- Goodlad, J. I., *Changing curriculum of America's school*, Saturday Review, Nov.16, 1963.
- Malcolm, S. K., *Informal adult education*,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0.
- Straelen, H., *Gavissimum educationis*, Constitutiones decreet declarationes concili
- The 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 *The religious dimension of education in a Catholic school*, London: Catholic Truth Society, 1988.

원고접수: 2006년 5월 18일 1차 심사: 6월 7일 게재승인일: 6월 20일

연구자 소개: 최영희

① 전공: 교육철학, 종교교육. 소속: 가톨릭 대학교 교수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교육사상, 가톨릭교육, 몬테소리 교육.

③ 주요논저: 《마리탱의 신앙심과 종교교육》, 《마리탱의 인간관과 휴머니즘》, 《성격이론과 교육의 과제》, 《가톨릭의 가정 종교교육》, 《몬테소리의 교육이론》,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

④ E-mail: choists@yahoo.ac.kr

Abstract

A Guiding Principle on Catholic School and Subject Matter of Religion

Choi, Young Hei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What nourish the faith-filled vision this is so necessary for religious education?

There is nothing new in these questions but they do seem to take on a added urgency today with the particular demands of our times and the challenges of today's apostolate in religious education. The entire work of the religious educator has to be situated in the context of faith for above all we are engaged in a ministry of faith.

School education is an art, and an especially difficult one. The task of religious education is really a matter of public emergency what does a great deal for virtue is love. Because the basic hindrance to religious life is egoism and the chief yearning of religious life liberation from one self, and only love, being the gift of oneself is able to remove this hindrance and bring this yearning to fulfillment.

Many things are good in the emphasis on action for life consists of action. But action aim at on object, a determining end without which they lose direction and vitality. A guidance principle of Catholic school aims at the formation of the human person in the pursuit of his ultimate end and of the good of the societies of which, as man, he is member, and in whose obligations, as an adult, he will share.

Key words : Catholic school, Religious education, A guidance principle of Catholic school, Declaration on christian education, Declaration on religious freedom, Subject matter of religion.